

‘비리 의혹’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검찰 압송... “이재명 모른다”

해외도피 8개월 만에 송환... 수원지검 압송 “성실히 조사 받겠다...심려 끼친 점 죄송”

쌍방울 그룹의 각종 비리 의혹의 핵심인 물인 김성태 전 회장이 17일 오전 8시43분 인천공항에 귀국했다. 해외 도피 8개월 만이다.

김 전 회장은 여객기에서 승객들이 모두 내린 뒤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장발에 남색 겹옷에 파란색 셔츠를 입고 있었다. 김 전 회장과 뒤로는 양선길 현 회장도 함께 모습을 보였다.

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난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 대해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 저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것이 죄송하다”며 검찰 조사를 받는 심경을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짧게 답했다.

아울러 “심려 끼친 점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혔다.

이날 입국장에서 김 전 회장은 일부 유튜브 버블의 고성에 이들을 노려보기도 했다.

이날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태국 현지에서 수사관들을 보내 방콕 공항에서부터 김 전 회장의 신병을 인계받았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국적기에 탑승한 직후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김 전 회장과 동행한 양선길 현 쌍방울 그룹 회장 역시 마찬가지로 잡혔다.

검찰은 체포영장이 집행된 뒤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만큼 김 전 회장 등을 인천공항 도착 즉시 곧바로 수원지검으로 압송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그룹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다.

2018~2019년 계열사 등의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64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해 북한에 건넸다는 대북송금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쌍방울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관련자들을 기소할 때마다 김 전 회장을 공범 또는 혐의를 주도한 인물이라고 적시해 왔다.

김 전 회장은 또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규명할 핵심 인물이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 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이 대표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그룹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입료가 대납 됐다는 내용이다. 이 의혹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서 처음 제기됐다.

이에 김 전 회장은 지난 15일 보도된 KBS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 대표에 대해 “만날 만한 계기도, 이유도 없다”며 “그 사람을 왜 만나냐”라고 관련 의혹들을 전면 부인해 왔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지난 10일 오후 태국 뻬뽀타니 소재 골프장에서 현지 이민국에



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의해 붙잡혔다.

체포된 뒤 불법체류 사실을 부인하며 현지 법원에서 재판받을 예정이었으나, 12일

돌연 마음을 바꿔 불법체류를 인정하고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다.

김재환기자

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허용

허용 구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을 앞둔 17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인근에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허용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 14일부터 24일까지 11일간 전통시장 주변 도로 461곳에 주차

‘2215억 횡령’ 오스텍 전 재무팀장 1심 징역 35년에 ‘판결 불복’ 항소

특경법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오스텍플랜트 전 재무팀장 이모(45)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씨는 전남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 벌금 3000만원과 1151억8797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부인과 처제, 처제의 배우자 명의 부동산 전세보증금·분양리조트 회원권 보증금 등 반환채권의 몰수 명령도 내렸다.

함께 범행에 가담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아내 A씨와 징역 3년을, 같은 혐의를 받는 여동생 B씨와 처제 C씨에 대한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인 2021년 10월까지 오스텍플랜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자신 명의 증권 계좌로 15회에 걸쳐 총 2215억원을 이체, 이를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횡령금을 이용해 7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아내와 처제 명의로 매입하고, 소유하던 상가건물을 부인과 처제에게 각각 한 채씩 증여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재무관리팀장이던 이씨가 전문학적 역수의 회삿돈을 장기간 횡령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액의 절반 가량을 회수하기 어려운 점, 코스닥 상장사였던 오스텍플랜트가 상장지정성 실적심사 대상으로 재개되는 등 피해가 막심했던 점을 등을 지적하며 중형을 선고했다.

최이슬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